

서울올림픽 판정 논란 금메달 돌려줬다

박시현, 2023년에 존스에 돌려준 것 뒤늦게 알려져

1988년 서울 올림픽 복싱 결승전 편파 판정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올림픽 역사상 가장 논란이 큰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미국의 전설적인 4체급 챔피언 로이 존스 주니어는 라이트 미들급 결승에서 한국의 박시현을 압도했지만, 충격적인 3대2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쳤다.

경기 내용은 일방적이었다. 존스는 전체 타격 수에서 86대32로 우위를 점했고, 1라운드 20대3, 2라운드 30대15, 3라운드 36대14로 세 라운드를 모두 이겼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심판진은 존스가 아닌 박시현의 손을 들어 올렸다. 시상대 위에서 존스는 은메달에 머물렀고, 박시현은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심판을 맡았던 우간다의 밥 카슬레, 우루과이의 알베르토 두란, 모로코의 히우아드 라르비 등 세 명은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중 두 명은 영구 제명됐다. 이후 올림픽 복싱은 심판의 편파와 부패를 막기 위해 전자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큰 변화를 맞이했다. 특히 라르비는 뒤늦게 "존스가 이긴 경기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최국 한국의 체면을 지켜주기



▲ 2023년 박시현이 존스를 직접 찾아가 금메달을 돌려주는 모습. 사진=SNS 캡처

위해 박에게 점수를 줬다. 다른 네 명의 심판이 존스에게 승리를 줄 줄 알았다"고 고백했다.

이날의 결과는 두 선수의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었다. 존스는 올림픽 금메달을 잃었지만 이후 34년에 걸친 프로 선수 생활에서 세계 정상에 올랐고, 명예의 전당

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반대로 박시현은 금메달리스트가 됐음에도 한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논란의 그림자는 그를 따라다녔고, 결국 극심한 우울증과 여러 차례 자살 시도로 이어졌다. 프로 무대에 나서지 않고 곧바로 은퇴한 그는 고등학교 체육 교사로 평범한 삶을 택했다.

세월이 흐른 뒤, 두 사람은 2023년 5월에 극적인 재회를 했다. 최근 뒤늦게 공개된 영상에는 박시현은 존스를 찾아와 금메달을 돌려주었다. 처음에 존스는 인터뷰만 알았다. 하지만 박시현이 직접 나타나 "이 메달은 당신 것이다"라며 금메달을 내밀었다. 예상치 못한 선물에 존스는 눈시울을 붉혔다.

존스는 "19살에 금메달을 목에 건 기쁨은 다시 되찾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 메달이 원래 내 것이었다는 사실을 안고 잠들 수 있다"고 말했다. 36년 전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화해는 올림픽 역사 속 가장 아픈 장면에 뒤늦게나마 따뜻한 결말로 끝났다.

우즈, 몸풀기 스윙 공개

이르면 12월 '히어로 월드 챌린지'로 복귀 점쳐

지난 주 타이거 우즈가 뉴저지에 위치한 리버티 내셔널 골프장에서 다시 골프채를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9일 공개된 영상에는 우즈가 파란색 '선데이 레드' 골프웨어를 입고 풀스윙으로 웨지 샷을 날리는 장면이 담겼다. 무엇보다 올 3월 수술 이후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통증 없는 스윙을 선보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골프 팬들이 우즈의 연습 장면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 모습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즈가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서 프로들과 경쟁한 것은 지난 3월 초 TGL 시즌 마지막 경기였다. 당시 그는 골 프로 무대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직후 아킬레스건 파열 사실을 발표하며 2025년 복귀 계획은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PNC 챔피언십에서 아들 찰리와 함께 59타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것이 가장 최근의 복귀전이었다. 그러나 그 직후에도 수술을 받았다. 그의 마지막 정규 프로 대회 출전은 2024년 7월 디 오픈 챔피언십이



▲ 타이거 우즈가 공개한 스윙 모습. 사진=SNS

있고, 컷 탈락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다섯 차례 출전한 것은 2019년 마스터스 우승 이후 가장 많은 출전이였다. 이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골프채를 드는 우즈의 모습은 그 자체로 큰 뉴스다.

■ 복귀 시점은 언제
우즈가 공식 대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회는 12월 초 '히어로 월드 챌린지'다. 우즈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규모가 작고 분위기도 여유로워 복귀 무대로 적합하다. 만약 그때까지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다면, 12월 말 PNC 챔피언십이 또 다른 복귀 무대가 될 수 있다. 이 대회는 스트레스가 적고 아들 찰리와 함께 출전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

본격적인 정규 투어 복귀는 2026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월 리비에라에서 열리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이나, 4월 마스터스가 그 무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마스터스에서 우즈는 잭 니클라우스의 통산 6회 우승 기록에 도전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우즈가 이번에 보여준 짧은 연습 장면은 단순한 스윙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부상 회복 여부와 향후 복귀 시점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PREMIER TAX GROUP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JUNGHOOON KIM
E.9923003@gmail.com
C.714.335.8256
카톡 ID: Junghoon123

프리미어 텍스 그룹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